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3호 [루체 제25336호] 주제 105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

조선혁명은 전인민의 생ぬ길을  
헤치며 백두의 대업을 풀기까지 이  
어나가는 위대한 혁명이다. 역사의  
모진 광물은 빛난아름하고 세기를 이  
어 승승장구해나가는 우리 혁명의  
불세의 기상은 하늘서리에 파문화도  
푸른빛 월지 않는 소나무의 억세기  
상과 같다.

당 제 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반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환성이 어린 사  
회주의 강국건설워업의 승리를 이어  
승정의 200일전투를 파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흥진군대 오에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  
신이 새하게 막 박하고 있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영광시사적행로와 절  
승봉래성을 성장하고 천만군민의 심  
장에 얹혀불사의 혁명신념과 불타는  
애국의지를 백배해주는 투쟁의 진군  
이다.

조선의 기상, 조선의 신념, 조선의  
정신이 용퇴되어 있는 이 노래를 높  
이 부르며 당중앙을 따라 밤새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한길로 끌까지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뻗  
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  
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품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불과 불 같은 혁명의 힘을  
제공해주시면서 저으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우리 혁명  
의 시원과 판판이 되어온 불후의 명작  
이다. 여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야말로  
백두산정과 천지인들의 혁명사상과 혁  
명역사, 혁명업적에 고동치는 맥통  
이며 송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  
명의 전로정을 이루어주는 펴풀  
이다. 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사  
회주의와 혁명의 전략적조선과 푸른  
우정파업들을 빛나게 활짝하기 위한  
오늘의 흥진군은 전제 군대와 인  
민들로 하여금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신을 험지하  
기 위해 헌신과 정신을 끌어내기  
요구하였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민

족주의 기지높이 자력자강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  
운동이다. 쟁기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서 우신  
길에 대비해 헌신과 헌법의 풍랑을  
풀어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을 품함없이 걸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의 신념이다.</p

# 인민이 사랑하는 값 높은 칭호

비약으로 폭풍치는 만리마시대에  
파편 어떤 일군이 필요한가.

종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수령장을 갖춘 편의시설, 타이로,  
문화관 등을 순식 없이 꾸며놓아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으로부터 죄고  
의 수준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은 김정숙평양에서 사장으로 일군들.

당 제7차대회 파업 판권을 위한 오  
늘의 적전에서 김정숙평양에서 사장장  
에서처럼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면  
사복부의 앞세를 떠고 실무장을 달  
도록 뛰는 단위들에서는 기적 창조의  
열풍이 일어나고 로동당만세의 진심  
어린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면사복부하는 것을 제  
질환한 일군 환사들은 백전을 대신  
한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우리 당이 높이  
쳐주며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  
는 일군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만사  
가 당의 의도에 맞게 잘되어나가며  
이런 일군들을 가리켜 인민들은 《우  
리라는 청년경련 호칭으로 부르며  
따르기 마련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혁명의 지침성  
원인들 일군들을 인민의 충복, 심부름  
꾼으로 기우는 면사복부의 시대이다.

\* \* \*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절대적 정표는  
인민의 충복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실향한 일  
군은 인민들의 생활 문제에 솔선수범  
판심을 풀려고 인민들이 아파하는 물  
제를 풀기 위하여 냄새를 막지 않으  
며 노력하는 법이며 인민이 바빠  
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애쓰기  
마련이다.

인민의 충복들에 대한 사랑과 존  
경심의 밀접성이 《우리》, 이는 일군들  
이 인민들로부터 받아안을 수 있는 가  
장 깊은 칭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  
군들은 인민들이 《우리》라고 부르며  
찾는 일군, 인민들이 기억하는 일군,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어운을 남기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  
명,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  
상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  
의 진정한 당입니다. 당을 강화하는 것  
도 당의 유타적령도체계를 세우는 것  
도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  
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이 없  
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파  
연 어떤 사람인가.

인민을 대 하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을 떠밀들고  
승승으로 성기인 인민이 자신의 앞  
에 있다는 위대한 인민관으로 실장을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우리 원수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인민관을 인정해주시면서도 일군은  
이야기 인민의 충복이란 시대의 값  
높은 청탁을 받아온다.

우리 일군들은 한사람한사람은 당의  
시대에 혁명의 철리를 배우며 당의  
정치적인 임무에 중임을 떠맡은  
문제를 소홀히 한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양하게 저적하시면서도 원인  
성을 구현하는데 첫째기는 관심을  
돌릴때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당에 대한 충성과 인민에 대한 충  
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며 당에 대  
한 충성은 그 자체로 당에 대한 충성인  
것이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일군들은  
자기 땀과 행복이 있어야 하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커갈수록 당의 위엄  
이 전진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의도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은  
우리 일군들이 들고나가야 할 해  
국의 구호이다.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언제나 인  
민의 땀과 땀과 인민의 참된 복부자,  
충복으로 일하는 질에서만이 뜻

이 이루어지는 실현의 구호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  
로 전시된 초고층이 빠른 맷 유풍  
에 오르시여 살피집을 하나하나를  
이보길 때의 일이었다.

청어의 이 실정으로 방 바닥도  
짚어보시고 주부의 실정으로 부엌의  
구석구석도 살펴보신 경애하는 원  
수님께서는 베란다에 나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  
게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  
편을 줄 수 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  
게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  
편을 줄 수 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호통의 살피집들을 돌아보시며 바람  
기름과 스며들지 않게 창문들을 바람  
막에 잘해 놓은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자 떠나시였다.

전설에 참가한 많은 일군들이 하  
루에도 몇몇에 오르내리었지만 그 누  
구도 판관하지 못한 비파소리,  
인민에 대한 판관제에 있다.

오직 우리 원수님처럼 살피집에서

살 주인이라는 판정을 가진 때만이  
가능할수 있는 문제였다.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인  
민을 놓으시고 모든 것을 인민에게 복  
종시키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  
시기에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이, 창조와 진실의 절대  
불변의 기준도 내 놓으실 수 있은것 아  
니면가.

어느제 1월 새로 건설한 어느 한  
상점을 돌아보시면서도 일군들이 상  
점을 살게 하면서 인민들의 편의를 회  
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찌를  
쓰지 않았다고, 미학적인 축면만을  
중시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를 소홀히 한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양하게 저적하시면서도 원인  
성을 구현하는데 첫째기는 관심을

돌릴때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지난해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결정한 일군들의 충복으로 일군들을  
당의 대중의 앞장에서 남면  
제 어깨를 들이밀고 언제나 실천으  
로 인민을 떠나는 실천가형의 일  
군, 이번 일군이 인민의 힘과 충복  
이다. 일군의 힘과 충복의 시대이, 창조의

시대이, 창조의 힘과 충복의 시대이  
는 이런 일군을 요구한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  
을 같이하고 풍랑 함께 지며 피와  
살, 뼈를 바치면 인민들이 애국의 열  
혈한 마음으로 부강조국건설에 한사  
랑같이 떠나나간다는것, 모든 일군들  
이 자기 땀과 헌신으로 일군으로서도

행복을 풀피우겠다는것은 비상한 각오를 가

지고 인민의 기쁨을 창조해나가는 빛  
나파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의도이다.

사람들이여, 우리 잠시 혁사적인  
당 제7차대회 회의에서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일군 앞에 헌신

실장의 맹약을 다시금 되새겨보자.

나는 온 땅을 조선으로 통당의  
위장장이되는 부자운 충일을 맡겨준  
대표자동차들과 전제 담당부, 일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실심으로 받아인고 충성을  
제기해 주면서도 품위로 충성을  
제기해 주기 위한 성스러운 품위의 길  
에서 이 한물을 아낌없이 내대고 군  
걸없이 쌔워나갈것이며 살사 봄이 및  
기고 쓰러져지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떠받들어 혁명앞에  
충신할것을 맡기고자 한다는것을 보  
여주는 고운적인 장면이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  
게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  
편을 줄 수 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  
게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  
편을 줄 수 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호통의 살피집들을 돌아보시며 바람  
기름과 스며들지 않게 창문들을 바람  
막에 잘해 놓은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자 떠나시였다.

전설에 참가한 많은 일군들이 하  
루에도 몇몇에 오르내리었지만 그 누  
구도 판관하지 못한 비파소리,  
인민에 대한 판관제에 있다.

오직 우리 원수님처럼 살피집에서

경위 할 수 없다.

직위와 간판으로는 사업권위를 세  
울 수 없고 일민의 사랑은 더욱 빛지  
않한다. 일민들은 직위나 간판을 따르  
는것이 아니라 차지들을 위하여 전진

로 아글라를 애쓰는 일군, 멘사복무의

길에서 일자리를 풍부로 내는 일군을 존  
중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한 날, 병사들이

깊은 잠에 골이 떠나는 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시

였을 때의 일이었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의 침

복식을 떠올렸다.

병사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



# 로동당시대의 불사조

## 하반신 불구의 몸으로 30여년 세월 갑 높은 애국현신의 자우을 새겨온 로동자영웅 희평규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되 것을 요구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한 로동자가 창조한 인생의轨迹이에요.

그는 이미 38년전에 죽음을 선고받았던 사람에게 오늘까지도 하반신마비의 불구자로 침상에 떠여있는 몸이다.

하지만 그는 30대 한창나이에 부터

70고개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 최후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으로부터 38년전인 주제 67(1978년) 5월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병원침상에서 후간환율증에 착수법으로 인한 전신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역이 막혔다.

온몸의 감각이 꽁그리 사라져버린 현실, 삶과 죽음을 다같이 안고있는 유태를 두고 어느 무쇠침장인들 나약해지지 않을수 있으랴.

더우기 그는 은진사를 신이었다.

보란듯 인생의 질, 할 일도 많고 잡질도 구한미처럼 멀고먼 인생길을 무사로 걸기에는 성자지 않아 종학기사실부문 운전대에 걸고있는 자신의 모습을 굽어보았던 그에게 종업후에는 뜨락도르를 물고 기름진 휘야벌을 깔아엎었고 군사복무의 날마다 온전체를 잘하고 성신의 깔바탕을 세 침문이 넘나들었다. 제대후에는 조선과학묘부영화촬영소(당시)에서 운전사를 거쳐 운수장장으로 사업하면서 자동차를 물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메주��듯 하던 그였다.

그리면 그가 풀지에 전신이 미비되어 침상에 쓰러졌으나 그 퍼로움을 더 달래 무언하라.

혁명을 위해 기어이 살아야 했기에 생

세월 두손에 마치를 얹세계 끌어하고 애국현신의 자우를 새겨왔으며 지금 이 시각도 고통탕과 용명의 피줄을 잊고 사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제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불사조화도 같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2만여년에 걸친 각종 전기기계들의 발전기와 시동기를 수리하고 수도의 중요 대상건설 장들과 전국의 수백개 단위들에 대한 땅의 지원물자를 보내주었으며 인민군인들에게 대한 원호사업을 원칙으로 진행하여 온 그의 한생에서 우리는 보았다.

로동당시대가 끝은 로동자영웅, 불사조의 모습을.

눈을 썬어 살피며 삶을 지켜내고 세 손으로 자기의 두발을 자르며 죽음과 죽어 이긴 항일의 불사조들을 생각하며 정신파 힘을 다시 가다듬었다. 그럴 때마다 온몸을 죄시며 허리내린 것은 걸고 땀이 아니었다.

혁명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기어이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안고 고동처는 불굴의 심장에서 뿐이 나오는 불은 피웠다.

며칠 후 정상으로 올라온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자루포인들을 모아 곤도로 갖고 아이들에게 보내줄 학습장도 끊었다. 남들 같으면 실심풀이로나 어길 범지 않은 일거리였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침에 겨운 운동으로 이동하고 싶었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광복거리, 통일거리, 5월 1일 경기장, 영원밀집소, 회천밀집소를 비롯한 주요대상건설에 참가한 수많은 훈련기계들의 발전기와 시동기를 수리하였다. 이 과정에 어려운 운수단위의 일군들을 알게 된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대동강구역의 어느 한 편의 사업소에 정수축을 하였으며 나파에 보령이 필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돌아누워 한숨 들리고 나서는 때마다 엎드려 일하던 어느날 희평규동무는 그들짜의 편제밀이 민자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펴려고 하였다. 허리에 걸친 힘으로 일하던 어느

## 《북비핵화》 태령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세기를 이어 미국의 책임 없는 핵위협을 당하며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염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 우리가 만년을 이겨내며 외세의 혁선제 공격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것도 수십년동안 이 땅에서 배회하는 핵전쟁의 구름을 종국적으로 가서미려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수를 가질 의지와 선언이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상전들과 함께 우리의 핵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견해를 놓으면서 『북비핵화』가 선방되거나 전쟁에 대한 폭넓은 수단을 두지 못하게 되었다.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임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2차 대회 노선으로 『선 북비핵화』의 악정으로 도전하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통속을 암시하고 있는 『제2차 학교』 속에서 미처 날리고 있다. 그야말로 가장 흥악한 핵무기자들이 저들의 구린내나는 불풀을 가리우고, 우리를 무장해시켜려는 마리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피씨들은 조선반도핵 문제를 빛내고 악화시키는 주범으로서 그 무슨 『북비핵화』를 떠들어댈 줄뿐만 아니라 북미를 향해 미친 듯이 박침전쟁의 불길을 퍼트려보려고 미친듯이 말았다.

특히 워싱턴피씨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핵통에 적극 편승하여 전시작전체제전환까지 미국과 그의 동맹으로 추구하며 나와 민족을 민족에 혼 피씨제당은 그들의 피약부여로 핵전쟁의 불길을 퍼트려보려고 미친듯이 말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무분별해지는 핵위협을 통해하고 조선반도를 기반으로 한 핵전쟁으로 추구하며 나와 민족을 민족에 혼 피씨제당은 그들의 피약부여로 핵전쟁의 불길을 퍼트려보려고 미친듯이 말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억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리를 따라야 한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일관하게 주장을 하는 비핵화는 남북제기와 남조선조선의 비핵화가 포함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자체에게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고고하고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니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뜻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파 군대와 인민의 드린

싼 대가를 치르며 마련한 우리의 핵은 그 무슨 『위협』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새 전쟁을 억제하는 실질적 핵으로 되고 있다.

이 업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북비핵화』를 떠드는 것은 문상현등의 조보적인 인파에게서 미루한 완전한 생역지이며 언어로도 있다.

조선민족에게 엄청난 불행과 희생을 입힐수록 우리는 더욱 핵무기반인 핵통에 적극 대처하였지만 북미

통은 아무런 문제도 될것이 없고 우리

종치애들의 죄악도 결코 상전에서 짜지지 않는다.

이 땅에 무시로 들씌워지는 택전쟁의 힘에 무시로 들씌워지는 택전쟁의 유린이다. 적대세력이 긴장기계 떠들어대는 『북비핵화』 태령이 그 누구에게 통할수 없는 피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미국과 박근혜제당이 그 무슨 『북비핵화』에 대해 고이대며 『북비핵화』의 간판위에 분주장을 피우고 있는 것은 그의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풀릴수록 더 힘들어지는 태도로 휘두르지 못하게 된 차파심에 따른 불풀이에게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장을 좌절시키고 말았다.

특히 워싱턴피씨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핵통에 적극 편승하여 전시작전체제전환까지 미국과 그의 동맹으로 추구하며 나와 민족을 민족에 혼 피씨제당은 그들의 피약부여로 핵전쟁의 불길을 퍼트려보려고 미친듯이 말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무분별해지는 핵위협을 통해하고 조선반도를 기반으로 한 핵전쟁으로 추구하며 나와 민족을 민족에 혼 피씨제당은 그들의 피약부여로 핵전쟁의 불길을 퍼트려보려고 미친듯이 말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억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리를 따라야 한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은 정부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실현해야 할 다섯 가지의 정당한 요구를 제시하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청원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없는 평화로 세계를 바꾸면서 우리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비핵화』로 살구멍을 찾으려는 전자는 전자가 통할수록 더 넓어지도록 알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한 번 더 외면하고 어려서는 『북비핵화』 태령으로 이송해온 남조선당국의 조선반도비핵화의 앞길을 막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비핵화』로 살구멍을 찾으려는 전자는 전자가 통할수록 더 넓어지도록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데도에 하에 말려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정책적임상을 명백히 밟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 판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무정에 전입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박근혜제당이 『북비핵화』 태령을 짐작하지 내놓으며 어른을 이지밀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제가 맨 베개를 세가 꿀어야 하는 법이다. 미국과 피씨제당은 일로 태도로 많은 『북비핵화』를 만들것이 아니라 북미 우려에 대한 핵위협공급의 균형부터 완전히 세거하는 날짜에 날짜 조선반도의 비핵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험해하는 심각의 핵이 선차적으로 세거되고 지구상에서 제주주의의 핵위협과 전쟁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미국과 피씨제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억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리를 따라야 한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은 정부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실현해야 할 다섯 가지의 정당한 요구를 제시하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청원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없는 평화로 세계를 바꾸면서 우리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비핵화』로 살구멍을 찾으려는 전자는 전자가 통할수록 더 넓어지도록 알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한 번 더 외면하고 어려서는 『북비핵화』 태령으로 이송해온 남조선당국의 조선반도비핵화의 앞길을 막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비핵화』로 살구멍을 찾으려는 전자는 전자가 통할수록 더 넓어지도록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데도에 하에 말려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정책적임상을 명백히 밟고 있다.

리 호 전

##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조국해방 일흔한들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제정당준비위원회가 속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7월 6일 중국 싱양에서 진행되었다.

결정식에는 최은복 제2차 조선반도총연합회 회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싱양조선족련민회 회장

